

광주 한 보육시설서 지속적인 학대 시달린 여대생 눈물의 하소연

“욕설·학대…지옥같은 10년”

계란 삶아 판 돈으로 쌍꺼풀 수술→정신병원 입원시키려 해
어릴 때 초코바 꺼내 먹다 들켜→초코바 쌓아놓고 하루종일 먹여
인권위 결정에도 학대 여전…“다른 아이들 위해 진실 밝히는 것”
현 보육시설 원장 “사실과 달라…인권위 결정도 수용 못해”

“항상 작은 눈이 콤플렉스였어요. 친구들처럼 쌍꺼풀 수술을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도 없는 고아가 돈이 어디 있었어요. 궁리 끝에 그동안 모아놓은 3000원으로 계란 한판을 사 삶은 뒤 새벽(남광주) 시장에 팔아 7000원 정도 남겼어요. 시간 날 때마다 3년 정도 삶은 달걀을 팔았더니 40만원이 모아졌고, 쌍꺼풀 수술도 했어요. 그런데 이를 본 보육원장이 욕을 퍼붓더니 정신병원으로 데려가더군요. 10년 넘은 보육원 생활은 항상 이런식이었어요.”

추석연휴였던 지난 23일 광주의 한 보육시설 인근 카페에서 만난 고모(19·대 학교 1년)양은 여느 여대생과 다르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평범한 원피스 차림으로 나온 고양의 표정은 인터뷰 내내 어두웠다. 간간히 깊은 한숨과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간의 힘든 삶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고양은 “언론 인터뷰가 나가면 강제퇴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현재 같이 지내고 있는 아이(동생)들을 위해 용기를 냈다”고 했다. 이 시설에는 아동 4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고양은 태어난지 한달여 만인 1999년 5월 17일 밤 10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학2동의 삼성 아파트 입구 계단에서 보자기에 쌓인 채 발견됐다고 한다.

영·유아때 광주영아일시 보호소 등을 전전한 고양은 5살되던 해인 지난 2004년 지금의 보육시설에 들어와 14년째 머물고 있다.

하지만 해당 보육시설은 매일 욕설이 난무하는 지옥 같은 곳이라는 게 고양의 주장이다. 유치원생 시절 고양은 현재 머물고 있는 보육시설에서 초코바를 몰래 꺼내 먹다 사회복지사에 들켰다고 한다. 사회복지사는 고양에게 벌을 준다며 초코바를 쌓아 놓고 하루종일 먹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먹고, 토하고를 반복했던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아 지금도 초코바를 먹지 못한다고 했다.

결국 고양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2008년 보육원은 각종 아동학대 행위가 드러나 원장과 담당자가 사법처리되면서 지역사회에도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이후 몇년동안 보육시설내 학대행위가 사라진 듯 했지만, 지난 2013년 현 원장이 부임하면서 학대행위는 다시 시작됐다는 게 고양의 설명이다.

아이들에게 폭언은 일상적이었고, 정신병원에 보내겠다는 말 도서슴지 않고 있다고 한다.

평소 동생들을 감싸느라 원장의 눈 밖에 났던 고양은 쌍꺼풀 수술로 트집이 잡혔다.

고양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6년 남광주시장에서 3년여 동안 삶은 계란을 팔아 모은 돈으로 쌍꺼풀 수술을 했다. 원장은 자신의 허락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고양을 차량에 태워 나주의 한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하지만, 담당 의사 입원을 거부해 보육시설로 다시 돌아 올 수 있었다고 한다.

고양은 “그날 이후 원장은 특하면 정신병원, 보호관찰소에 보낸다고 협박했다”며 “실제로 5명 정도가 정신병원에 수용되기도 했고, 나처럼 보육생 중 부모가 없는 경우 더욱 심하게 대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학대내용 등을 신고받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해당보육시설이 속한 사회복지법인에게 현 원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아동과 시설종사자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 등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원장은 그 자리를 지켰고 변한 것도 없었다. 되래 고양에게 강제퇴소 시키겠다는 협박만 되돌아왔다.

최근 고양과 상담한 광주YWCA솔빛타운시설은 지난 13일 현 원장과 당시 복지법인대표이사 등을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보육시설 원장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고양에 대해서는 정신과 진료를 통해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서 “나주정신병원의 담당의사가 아이 입장만 들고 입원을 불허했다. 또 인권위 결정문에서 나온 학대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자녀 배웅하는 어머니의 마음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26일 광주 송정역 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KTX열차에 탑승한 자녀를 배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추석연휴 취업·건강 비관 자살 잇따라

추석연휴 때 20대 취업 준비생과 70대 노인, 모자(母子) 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5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시 서구 덕흥동 덕흥대교 인근 하천에서 A(2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취업준비생인 A씨는 전날 새벽 1시께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닿지 않아 실종 신고된 상태였다. 경찰과 119구조대 등은 A씨의 옷가지를 발견된 덕흥대교 인근 강변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여 물속에서 숨져 있는 A씨를 찾았다. 집에서 발견된 A씨 유서에는 ‘부모님, 힘들

었는데 고마웠다’는 내용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오후 1시40분께에는 고흥군 과역면 한 야산에서 B(71)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인근 마을 주민이 발견,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숨진 B씨가 발견된 장소는 부모 묘지 인근으로, 우울증약 등이 함께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B씨는 전날 고향 마을로 내려와 친척에게 “아버님 묘지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암 수술 후 우울증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돈 받고 교사들 채용한 광주 사학법인

“해당 교사에 지급한 인건비 8억 반환해야”

법원 판결…광주교육청 승소

돈을 받고 교사들을 채용한 학교법인 광주 남양학원은 비리에 연루된 교사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교육청에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광주시교육청이 남양학원을 상대로 낸 재정결합보조금(인건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남양학원이 운영하는 동아여자중·고등학교 교사 6명에게 지급된 인건비 8억2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이들 교사는 남양학원 이사장, 이사, 법인실장에게 1000만~1억5000만원을 뇌물로 주고 교사로 채용됐으며, 2017년 1월 임용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재정운영 정상화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재정결합보조금 지원 취지에 비춰 대가를 받고 교사들을

채용해 보조금을 받은 것은 목적 외 사용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 사건으로 피고(남양학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돼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사장 등이 채용 대가로 받은 돈이 5억7000만원에 이르고, 부정채용을

또 이날 오후 1시께에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4층에서 C(여·39)씨가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C씨가 추락 직전 부모와 말다툼을 했다는 가족의 진술을 따라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9시 30분께 광양의 한 야산에서 C(여·60)씨와 아들 D(33)씨가 함께 숨져 있는 것을 C씨의 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C씨 모자는 지난 2일 오후 집을 나선 뒤 소식이 끊겼으며 평소 신병을 비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에서 발견된 유서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현실과 게임 혼동…아버지 찌른 30대 체포

추석명절에 현실과 게임을 혼동한 3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고 할머니를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은 “존속 상해 혐의로 A(36)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42분께 정읍시 한 주택 마당에서 아버지 B(61)씨 어께와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인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했다. 마을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마당에 쓰러진 아버지 옆에 서 있었다.

A씨는 경찰관에게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에 밀려 넘어진 할머니(89)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 중독인 A씨가 아버지가 자신을 해칠 것 같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인터넷 판매 사기 20대 구속

광주북부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정육업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 소고기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모(27)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임씨는 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정육 관련 카페에 소고기, 전기갈망기 등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안모(32)씨 등 19명에게 112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추석을 맞아 고가의 정육 관련 물품을 구하는 정육업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정육 관련 카페에 자신을 정육업자라고 속여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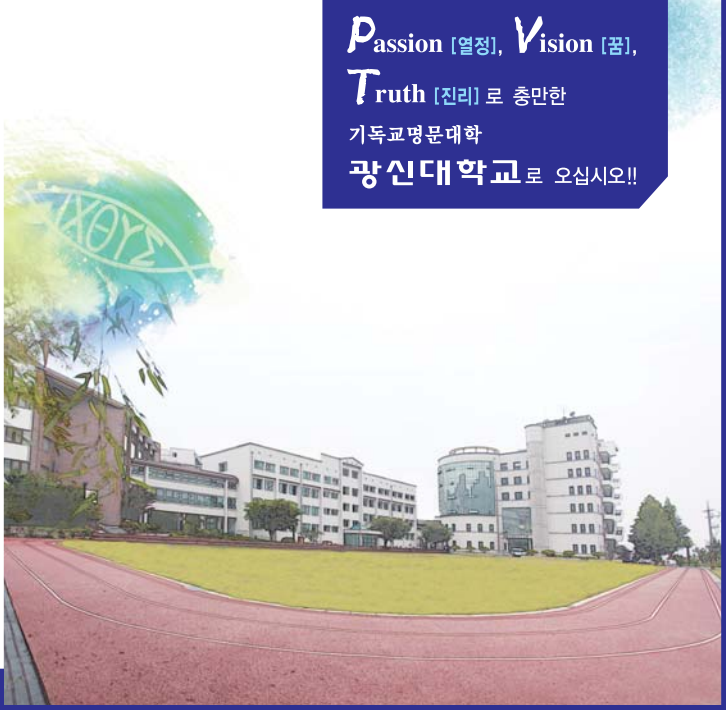
/김용희 기자 kimyh@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수시	정시
인문	신 학 과	30	16
	한국어교육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8	2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성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7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원서접수 : 2018. 9. 10(월) ~ 14(금) •전형일 : 2018. 9. 28(금)

정시모집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전형일 : 2019. 1. 10(목)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박사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25
일반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국제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추후 공지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사로 36